신마치와 후루마치

구마모토의 성하 마을은 성과 인접한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하 마을은 성 안쪽 해자 역할을 담당했던 쓰보이강을 중심으로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 북쪽의 성과 가장 가까운 구역을 신마치(새로운 마을), 강 남쪽을 후루마치(오래된 마을)라고 부릅니다. 성하 마을이라고 하면 구마모토성이 축성된 17 세기 초에 지어진 옛 민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77 년의 세이난 전쟁으로 구마모토성이 포위되었던 당시, 신마치는 파괴되었고 후루마치는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민가 중에서는 1878 년에 지어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상업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17 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 상점과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신마치와 후루마치에서는 가게 산책을 추천합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향토주와 함께 바사시(말 육회)와 가라시렌콘(겨자 된장을 채워 넣어 만든 연근 튀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사시는 구마모토성의 성주 가토 기요마사가 먹기 시작했던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라시렌콘은 1630 년대에 구마모토의 번주였던 호소카와 다다토시를 위해 스이젠지 절의 승려였던 겐타쿠가 요리인들에게 자양 강장에 좋은 요리를 만들도록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신구(新舊) 가게

신마치와 후루마치 곳곳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 상점과 맛집 등 다양한 가게를 볼 수 있으며, 그중에는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병 통치약’으로 불렸던 쇼도쿠케시간을 과거 번주에게 헌납했던 대형 한약점도 있습니다. 가게에는 서민들을 위한 입구와는 별도로 성의 가신들을 위한 입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로는 옛 상점을 독창적인 센스로 리뉴얼한 찻집과 강을 정면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건강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가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의 기능을 했던 강을 이용해 배를 타고 가게나 도매상에 상품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점 거리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를 수호하고 화재를 막아 준다는 ‘오지조상’(지장보살님)의 작은 석상과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에비스상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하 마을의 인상적인 풍경

- 신마치와 후루마치를 구분짓는 쓰보이 강에는 흥미로운 2 개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2 개의 다리 모두 도쿄에 있는 니혼바시 다리와 니주바시 다리의 설계를 담당했던 구마모토 출신의 석공, 하시모토 간고로가 설계한 것입니다. 다리의 이름은 가설된 연도에 따라 메이하치바시 다리(메이지 8 년, 1875 년), 메이주바시 다리(메이지 10 년, 1877 년)라고 지어졌습니다. 과거 메이하치바시 다리에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후루마치는 바둑판의 격자 모양으로 구획된 1 구역당 1 개의 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一町一寺). 후루마치 지구에는 24 개의 사원이 있으며 주택 뒷골목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내 안뜰에서 무사가 검술을 연마했던 과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들 대부분이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건축되었으나, 다이쇼 시대(1912-1926) 건축물 중에서도 세련된 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1919 년에 지어져 지금은 깔끔하게 복원된 은행(후루마치)과 1924 년에 지어진 서점(신마치) 등이 볼거리입니다. 과거 이 서점을 찾았던 고객 중에는 나쓰메 소세키(1867-1916), 라프카디오 헌(1850-1904), 모리 오가이(1862-1922) 등의 유명한 작가도 있었습니다.

- 옛 건물 대부분은 큰길에 면해 있는 곳에 가게를 두고 한가운데에 정원이나 안뜰, 뒤편에는 점주가 생활하는 집이 있었으며 대문과 창틀에는 복잡한 디자인의 목공예가 세공되어 있습니다.